

한국 4개 지역, 세계지식재산기구 100대 과학·기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선정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세계지식재산기구 ‘100대 과학기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선정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9월 20일(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2023년 「100대 과학·기술 협력지구(클러스터)(S&T Cluster*)」에 한국의 서울(3위), 대전(18위), 부산(74위), 대구(91위)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 Science & Technology Cluster : 특허출원 · 과학논문 점유율을 합하여 과학과 기술개발에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이는 지역을 선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혁신의 주요 요소인 과학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역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특허출원 활동과 과학논문 발표를 분석해 발명가와 과학 저자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도쿄·요코하마(일본)가 가장 규모가 큰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선정됐고, 다음으로 선전·홍콩·광저우(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대한민국)이 3위로 선정돼 지난해(4위)보다 1단계 상승했다. 다음으로 베이징(중국), 상하이·쑤저우 협력지구(클러스터)가 그 뒤를 이어, 상위 5개 협력지구(클러스터) 모두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지구(클러스터)가 선정됐다.

100대 협력지구(클러스터)에 한국은 중국(24개), 미국(21개), 독일(9개) 다음으로 많은 4개(서울, 대전, 부산, 대구) 협력지구(클러스터)가 포함됐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과학자나 발명자의 아이디어가 보다 빨리 실현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생태계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100대 과학·기술 협력지구(클러스터) 선정으로, 한국이 집중적으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혁신생태계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활용되고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장	윤세영 (042-481-8197)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최교숙 (042-481-8555)

붙임 1

' 23년 국가·지역별 상위 100대 GII S&T 클러스터 규모 순위

순위	클러스터	국가
1	도쿄-요코하마	일본
2	선전-홍콩-광저우	중국/홍콩
3	서울	한국
4	북경	중국
6	산호세-샌프란시스코, CA	미국
12	파리	프랑스
18	대전	한국
20	런던	영국
22	뮌헨	독일
26	암스테르담-로테르담	네덜란드
27	타이베이-신주	대만
30	텔아비브-예루살렘	이스라엘
31	모스크바	러시아
33	싱가포르	싱가포르
34	테헤란	이란
38	스톡홀름	스웨덴
42	멜버른	호주
48	마드리드	스페인
49	취리히	스위스
50	밀라노	이탈리아
51	브뤼셀-안트베르펜	벨기에
52	토론토, ON	캐나다
56	벵갈루루	인도
59	이스탄불	튀르키예
61	코펜하겐	덴마크
72	상파울루	브라질
73	헬싱키	핀란드
76	빈	오스트리아
90	바르샤바	폴란드
97	바젤	스위스

붙임 2**' 23년 100대 GII S&T 클러스터 3개 이상 진입국가**

Economy	국가	TOP 100 진입 수
CN	중국	24
US	미국	21
DE	독일	9
KR	대한민국	4
CA	캐나다	4
IN	인도	4
JP	일본	4
FR	프랑스	3
GB	영국	3
AU	호주	3